

2017 신년 인터뷰

이낙연 전남지사

‘전라도 1000년’ 당당하고 넉넉한 호남 복원

이낙연 전남지사는 요즘 틈틈이 ‘트렌드 코리아 2017’, ‘미래의 속도’, ‘대혁신의 길’ 등의 책을 읽고 있다. 국내외 변화 움직임은 물론 전 세계의 트렌드를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혁신해야 할 것과 방향을 정하겠다는 의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그동안 항상 뒤처져 왔던 전남으로서의 변화의 기류를 미리 읽고 대비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 지사는 2018년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을 1년 앞두고, 당당하고 넉넉한 호남의 복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호남 정신과 시대 정의의 실현과 함께 호남인으로서 긍지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올해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올바른 선택’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선을 계기로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굵직한 공약을 발굴하고, 이 계획들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 올해 화두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 도정 직원들에게는 어디서나 주인이 되라는 의미의 ‘수처작주’(隨處作主)를 당부했는데, 도민들에게는 ‘처변불경’(處變不驚)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격변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한 것이 변해도 흔들림 없이 대처하자는 의미다.

올해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단을 서두르거나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는 등 이를 줄이려는 지혜가 모일 것으로 판단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앙정부나 정치권은 큰 틀의 변화를 막 시작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전부터 해오던 것을 잘 이행하면 될 것이다. 변화에 취약한 것은 늘 약자이며, 소외계층이다보니 그분들의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향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 2018년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이 1년 남았다.

▲ 내년이면 전라도가 생긴지 1000년이 된다. 1000년 중 전라도가 타 지방보다 위축되고 더 못살게 된 것은 ‘박정희의 산업화’ 이후 50여 년에 불과하며, 그 전에는 넉넉하고 당당했다. 산업화 이후 위축된 것이 변화하면 위축을 탈피해서 다시 당당해지고 넉넉해지는 것도 가능한 변화일 것이다.

의기소침하기보다는, 힘을 모았으면 한다. 넉넉하고 당당한 전라도를 만들자는 다짐이 전라도 1000년을 맞는 호남인들의 가슴 속에 깃들었으면 좋겠다.

호남은 늘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다. 대선 주자도 최근 20년을 놓고 보면 1명의 대통령(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했고, 1명의 대통령(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택했으며, 1명의 후보(정동영 의원)를 낼 정도였다.

- 민선 6기 성과를 꼽는다면.

▲ 도정으로 보면 일자리종합대상 수상이 가장 큰 성과였고, 다음으로 국비 확보 6조원 돌파를 들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CEO를 수상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 전남 지역별로 과제가 있다면.



남도문예르네상스 지역발전 동력

무안공항 서남권 허브공항 키울것

예산 6조시대 ... SOC 확충 집중

자원 특화 관광객 5000만명 유치

▲ 앞으로 다듬어야 하겠지만, 서남권의 경우 기존의 솔라시도,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서울(목포)~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포괄하는 해양수산관광프로젝트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동부권은 현재 복선전철로 돼 있는 전라선 고속철도의 조기 개통, 여수~남해 간 동서해저터널의 건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기 투자 실현 등이 있다.

중부권은 현재 점만 찍어져 있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선과 면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전남 전체에 해당하는 남도 문예 르네상스를 통해 여행 남도의 문화자원을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일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 다가오는 대선에서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가.

▲ 호남은 시대 정신, 시대 정의, 그 긍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 대한민국에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야 하는지 대중은 알고 계실 것이다. 호남 정신을 담은 후보에게 아마도 70%선까지는 표심이 모일 것으로 본다. 지금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고 분열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싸늘이’는 올바른 것이 아니며, 바랄 수도 없다. 상대적으로 정의로운 편에 힘을 실어주는데 전남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혜씨가 추락할 때 이 지역의 지지율이 0%였는데, 이를 보고 호남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들었다.

- 전남의 미래를 대비해 대권주자에게 주문할 공약 사항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 이미 광주와 함께 지난해 11월 말 논의를 시작했으니 다른 지역보다는 신속했다. 1월 말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과제는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공항으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 인도 다음으로 부상할 곳은 동남아시아이다.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서 여행객이 늘고 한류가 꽃피울 수 있다면 그 ‘반점 점시’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의 관문 중에 하나인 무안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키워야 한다. 이러한 큰 틀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가 어느 구간으로 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광주)민간공항 통합 문제로 자연스럽게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다.

-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 먼저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교통망 등 기반시설(SOC) 확충을 앞당기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국고예산을 2012년 여수엑스포 이후 처음으로 6조원 넘게 확보한만큼 예상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권역별 관광자원을 특화하고 그 매력을 늘려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열겠다. 아직 관광이 활발하지 못한 서남권은 SOC 확충에 노력하면서 새천년대교 개통과 흑산공항 개항 등에 대비해 숙박, 음식, 의료 등 관광객을 맞을 체비를 갖추어 가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키우겠다.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 가공유통 발전 등을 통한 농어업 소득 증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더욱 배려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악화의 원인을 원점에서 분석해 소통과 점검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도 개선 대책을 곧 발표하고 시행하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전남이 처한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전남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저는 그 일에 신념을 바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대담=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리=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자치단체별 제각각 ... 음식점 인증제 통일

지역자치단체별로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음식점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올

해 5월 19일부터 전국 통일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추가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70명 선발

정부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으로 총 1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계획’을 공고한다고 3

일 밝혔다.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출신의 인재를 공직에 채용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수의사 동물진료 보조 동물간호복지사 도입

수의사의 동물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따라 동물간호복지사가 국가 자격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친환경 수산물 홍보·판매 마케팅 펼친다

직거래장터 운영 등 7개 분야

전남도가 올 한해 직거래 장터 운영, 월별 제철수산물 선정 등을 통한 친환경 수산물 홍보·판매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3일 “올해는 타 지역 관광 방문객이 많은 주요 관광지외 수도권 등에서 ▲직거래장터 운영 ▲월별 제철수산물 선정 ▲학교급식 공급 확대 ▲각종 박람회 참가 판매활동 등 7개 분야로 나눠 전남산 친환경 명품 수산물 홍보·마케팅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첫 사업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 설맞이 명절선물 상품전’에 참가, 설을 준비하는 기업 및 단체

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도내 우수 수산물과 수산 가공식품을 도에서 직접 홍보·판매한다.

또 수도권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왕래가 많은 서울시청역, 잠실역, 김포공항 등에서 전남도 친환경 명품 수산물 이미지를 설과 정월대보름 전후 2개월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생산 어업인들과 수산 가공식품 업체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에서 소비·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이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생 법적 구제절차 지원

광주시는 3일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체불임금 계산과 구제절차 상담, 진정 등 법적 구제절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광주지역 이랜드파크 10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1455명이 3억여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

해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광주시노동센터를 연계해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 필요한 구제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1588-6546),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1588-0620), 광주시노동센터(062-364-9991),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담과 구제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미국으로 수출하는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는 육질이 단단하여 씹힘성이 좋은 고급횟감입니다.
- 초밥용 횟감으로 최고인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에는 기능성 성분이 EPA 및 DHA 등의 함량이 많아서 성인병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수산물을 많이 먹는 에스키모인, 일본인은 무병 장수하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선 중에 많이 들어있는 EPA, DHA, 타우린 등의 기능 성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생선횟감으로 치는 광어보다 참송어의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을철의 최고의 횟감인 전어와 지방 함량이 비슷합니다. 한편, 기능성 성분인 EPA 및 DHA는 전어의 1.5배, 도다리의 8배 높습니다. 따라서 하동 왕의녹차 참송어를 먹으면 성인병 예방효과로 인하여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동왕의녹차 참송어 드시고 성인병예방과 백세건강하세요.~~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 하동군어류양식업연합회 / 하동녹차참송어영어조합법인

· 구입·유통문의 | 055)883-9715

